

기관명	(국 문) 드 아펠 아트센터 (영 문) De Appel (현지어) De Appel			
소재지	암스테르담 (Schipluidenlaan 12D4 1062 HE Amsterdam NL)	설립연도	1975	
대표자명	Monika Szewczyk	직함	Director	
기관소개	1975년 위스 스말스(Wies Smals)의 주도로 설립된 드 아펠(De Appel)은 네덜란드에서 가장 오래된 비형리 현대미술기관이다.			
주요 사업	드 아펠 설립 초기에 보여준 전위적인 퍼포먼스와 비디오 프로그램이 지금의 드 아펠로 자리잡는데 기여했으나, 단연 드 아펠의 주요 사업이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'큐레토리얼 프로그램(Curatorial Program)'이라 할 수 있다. 매해 전 세계의 신진 큐레이터들이 지원하는 이 프로그램은 그중 6명이 선발되어 약 8개월간 암스테르담 레지던시에 머물며 큐레이팅과 관련된 다양한 경험과 교육을 받는다.			
주요 담당자	이름	직책	담당업무	이메일
	Maaïke Lauwaert	Head of internal affairs	기관 대내외 업무 총괄	maaïke@deappel.nl
	Nell Donkers	Curator archive	아카이브실 업무 총괄	nell@deappel.nl
	Liza Nijhuis	Coordinator Curatorial Programme	큐레토리얼 프로그램 담당	liza@deappel.nl
기금 운영현황	디렉터와 총괄 업무를 맡은 인력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주중 2-3일을 근무하는 파트타임과 인턴들로 인력이 구성되어 있다. 기관의 실무를 돌보는 인적 구성 외에도 여섯 명의 보드멤버를 두어 기관 운영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한다. 재원 현황은 정확히 파악할 수 없으나, 5년마다 수혜기관을 재편하는 기금을 지난 몇 년부터 받지 못하면서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.			
2020년 주요계획	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큰 임무이며, 동시에 내용적으로는 중남미의 캐리비안을 지역적으로 살필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. 큐레토리얼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내년 9월-10월 사이에 참가자들과 함께 광주 비엔날레를 중심으로 한국 방문을 계획 중에 있다.			
교류를 위한 팁	네덜란드 내 기관은 대체로 펠로우십 운영을 통해 기관의 인적 네트워크와 내용적인 측면을 보강하고 있다. 기관 및 대학에서 미술뿐만 아니라 공연, 디자인, 철학 등 다양한 분야의 펠로우십이 가능하니 네덜란드의 문화 활동에 관심있는 사람들은 몇몇 기관을 잘 살펴보면서 공고를 기다려도 좋을 듯하다.			